

Robinson Crusoe를 통해 본 소설의 발전

김 명 렬

영국소설의 기원을 논할 때면 언제나 *Robinson Crusoe*가 언급되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그 내용과 묘사의 사실성에 있다. *Robinson Crusoe* 이전에도 산문으로 된 허구는 많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허황된 내용에다가 과장되고 장식적인 필치로 기술된 로맨스들이었다. 이에 비해, 체험기와 같은 현장감 있는 내용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Crusoe*의 이야기는 이들 로맨스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사실주의 문학의 새 장르인 소설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처럼 *Robinson Crusoe*가 소설의 기원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설의 전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점에 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의 전형이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Robinson Crusoe*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설은 형식의 유동성을 그 가장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는 달리 그 정형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더우기 요즈음의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윤곽을 지을 수 있었던 소설의 정형마저 거부하고 해체하는 추세이어서 그 같은 논의는 더더구나 난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단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지만, 편 의상 Jane Austen의 소설들로부터 19세기의 사실주의 소설들을 거쳐서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어 온, 소위 전통적인 소설들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모형을 소설의 전형으로 규정한다.

그같은 소설의 전형을 이루는 특성들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산문설화로 된 허구라는 것이며, 둘째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소재와 묘사의 사실성이다. 셋째로는 통일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설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Aristotle 이후 공식화된, 문학작품에 대한 오랜 전통적 관념으로서 소설보다 앞서 정립된 장르인 시와 희곡등에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에도 당연한 것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두번째의 특성에서와 같이 이 통일성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전작품을 관류하는 아이디어, 즉 일관된 테마(theme)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성상의 문제로서, 그런 주제가 완결된 형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상 처음과 중간과 끝이 분명하고 또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Robinson Crusoe*는 이같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제대로 충족하는 것은 첫번째의 기준 뿐이다. 이 작품을 현대소설의 시조라고 평가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과 묘사의 사실성도 실은 작품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의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더우기 세번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작품은 상당히 심각한 결함들을 노정한다. 즉, 작품 안에 서로 다른 테마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는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곤혹스럽다. 또 구성면에서도 전체를 한개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두세개의 범주

가 다른 이야기들이 필연적인 연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지가 분명치 않다.

*Robinson Crusoe*가 출판된 이래 언제나 대단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 온 까닭도 이같은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 18세기는 소위 전통적인 소설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것을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로 보았다. 그래서 호의적인 평자들은 이 작품의 종교적인 성격, 또 근면성, 창의성, 인내심 등을 고취하는 점들을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할만 한 책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작품의 사실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의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Charles Gildon의 *A Dialogue betwixt D—F—e, Robinson Crusoe, and His Man Friday*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풍자문에서 Crusoe는 Defoe가 자기를 악당으로 만들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를 London에서는 개신교도라고 하였다가 Brasil에서는 구교도로 만들어 놓고 무인도에서는 다시 개신교도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Friday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Defoe의 유죄를 주장한다.

Have injure me, to make me such blockhead, so much contradiction, as to be able to speak *English tolerably well* in a Month or two, and not to speak it better in twelve years after....¹⁾

더우기 우스운 것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충고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지 않도록, 불효한 자식은 벌을 받는다는 예화로서 이 글을 썼으면서 실제로는 벌 대신 금전적 성공을 갖다 준 것을 Defoe 자신이 역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19세기의 독자들도 이작품을 기본적으로 모험담으로 보았고,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과 묘사의 꺾진성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소설형식에 비추어 본 평자들은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례로 한 익명의 평자는 1856년 *Dublin University Magazine*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In one of the qualities of a novelist he was unaccountably deficient — not even coming up to her precursor Mrs Behn. To the construction or the most vague conception of a plot he seems to have been quite inadequate.²⁾

이 평자가 *Robinson Crusoe*를 지목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논평은 Defoe의 작품 전부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Robinson Crusoe*에게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이 작품을 단순히 청소년을 위한 오락물 내지 교훈서로 보지 않고 성숙한 독자를 위한 심각하고 진지한 문학작품으로 보려는 노력이 많은 학자,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 작품을 단순히 흥미 본위로 이것 저것을 주어 맞춘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진지한 의도와 치밀한

1) Charles Gildon, "A Dialogue betwixt D—F—e, Robinson Crusoe, and His Man Friday," in *Robinson Crusoe: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ed. Michael Shinage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5) p.279.

2) Pat Rogers ed., *Defoe: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K.P., 1972), p.153.

계획 하에 그의 사상이 개진하고 있는 글로 보고자 했다. 예컨대 George A. Starr나 J. Paul Hunter같은 비평가들은 *Robinson Crusoe*를 종교적 구원에 관한 글로 읽으면서 전편을 반항, 징벌, 회개,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³⁾ 이같은 노력들은 비록 각도는 약간 달라도 이 작품을 일관된 테마를 가진 소설로 보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입증하는 데에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Ian Watt는 *The Rise of the Novel*에서 이 작품을 제대로 된 소설로 보기보다는 소설의 발생을 유도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의 정신적 배경을 서구의 시민사회, 산업사회의 정착과 더불어 흥기하게 된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가져온 개인과 일상생활의 중시 경향이 소설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Crusoe의 행동원리를 경제적 개인주의와 종교적 개인주의로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안에 두개의 테마가 양립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Defoe가 겪은 작가로서의 고민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그것은 곧 소설이라는 장르가 탄생하기 위한 진통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속에서 소설발생의 과정과 소설의 근본적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소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이작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통일성의 문제였다. 그것은 앞에서 테마와 구성상의 문제로 한정하였지만 테마에 따라 서술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서술방법상의 문제도 이에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 논의의 방법은 처음에 작품전체의 통일성으로 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좁혀 가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전체의 통일성에 관해서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Crusoe가 무인도에서 구조된 후 Lisbon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겪는 모험담이었다. 사실, 무인도의 이야기와 이 육상모험은 Crusoe라는 동일한 주인공의 모험담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연속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너무나 현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포섭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이 작품의 줄거리가 항해와 폭풍으로 시작하여 결국 주인공이 난파당하고 무인도에 표류하여 근 30년간을 혼자 생활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조되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이같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지막 에피소드는 필요 없는 군더더기로 여겨진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바다와 무인도에 이야기가 진전되어 왔으므로, 육지의 모험담은 이질감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이 불일치 보다도 더 큰 차이는 두 이야기의 질적 차이이다. 그것은 두 이야기 사이의 긴장감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자에서는 난파하는 상황이나, 무인도에서의 생활, 식인종들의 퇴치, 그리고 Crusoe자신의 구조 등이 상세하고 치밀한 기술을 통해 긴박하게 전개되어 독자의 주의를 사로잡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Crusoe가 경험하는 자기성찰, 종교적인 사색,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성과 개전, 그 결과로 얻은 법열의 경험, 또 외부의 인간과 다시 접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취해야할 태도에 대한 고민등, 도덕적인 긴장이 끊임 없이 연속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3) George A. Starr, *Defoe and Spiritual Auto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P, 1965) 와 Paul J. Hunter, *The Reluctant Pilgrim: Defoe's Emblematic Method and Quest for Form in Robinson Cruso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6) 등이 그 예이다.

생생한 현장감과 도덕적 긴장감을 찾아 보기 힘들다. 우선 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든지 자기와 세계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여기에는 없다. 여기에서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는 그런 피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다. Crusoe는 Pampeluna에서 Fonterabia까지 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의로 육로를 택한 것이고, 또 늑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택한 길이다. 더구나 그 위기라는 것이 Crusoe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십여명의 집단이 총기를 서너개씩 휴대한 가운데 늑대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사냥꾼들의 모험담같은 유희적 분위조차 느끼게 한다.

긴장과 갈등의 고조를 정점으로 하는 극적인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에 소위 안타이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은 상례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였을 때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경우와 같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때에는 그것을 앞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이야기의 통일성을 의식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위에 든 연구서들도 이점에 관한 별로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Watt의 이정표적인 연구는 주로 무인도를 탈출하기까지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Crusoe의 육상모험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이후에 그가 *Robinson Crusoe*만을 갖고 쓴 논문인 “*Robinson Crusoe as a Myth*”에서도 그는 논의의 범위를 무인도에서 구원될 때까지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이 작품을 개신교문학에서 유행했던 종교적 개종을 주제로한 예화의 한 형태로 보고 주요한 사건들의 종교적, 정신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Starr도 마지막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오직 Hunter만이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듯이 이 작품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에피소드가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그에 의하면 마지막 에피소드는 Crusoe가 정신적 순례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이야기로서 그의 종교적 성숙의 완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늑대들이 출현한 가운데에서도 Friday로 하여금 곰을 놀리게 하여 일행이 한바탕 웃고 즐기는 장면은 아무래도 그같은 심각한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구나 곰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길게 늘어 놓은 다음, 지나가는 곰을 일부러 돌로 쳐서 악을 울리고 나무 위에 올려 놓고 풀리다가 쏘아 죽이게 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의 처신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곰이 나무에서 완전히 내려오기 직전에, 즉 사람을 공격할 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쏘아 죽이는 것은 엽도에도 어긋나는 잔인하고 비겁한 짓인데, Friday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Crusoe가 즐겼다는 것은 그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Hunter는 Crusoe 일행이 늑대떼를 물리치고 난 다음날 “따뜻한 기후, 그리고 눈이나 늑대나 그런것들이 없는 풍성하고 즐거운 고장(a warm Climate, a fruitful pleasant Country, and no Snow, no Woves, or any Thing like them)”인 Thoulouse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최후의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약속된 복지로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⁵⁾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위에 인용한 한마디 이외에는 그곳에 관한 언급이 없

4) *Ibid.*, pp.188-201.

5)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ed. Michael Shinagel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5), p.234. *Robinson Crusoe*의 인용은 이 판본에 의거하며 이하에서는 면수만

다는 것이 이상하다. Thoulouse가 Crusoe의 여행의 목적지도 아니고 오래 묵은 곳도 아니라는 점도 그런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 또 위에 인용한 글에 나타나는 정도의 안락함과 쾌적함에 대한 표현은 무인도의 포도밭에서도 이미 표현바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붙일만큼 새롭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피소드가 Crusoe의 정신적 편력의 대단원을 이루는 결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Defoe 자신이 서문에서 이 작품의 종교성과 교훈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작품의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바다와 고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이제 육지를 배경으로 모험을 꾸며보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충동일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흥미를 위해서 덧붙인 것이지, 작품의 논리상 필요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 에피소드는 앞의 이야기와는 여러면에서 이질적이므로 그것을 포함해서 이 작품의 통일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보면 전체가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 통일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머지 부분, 즉, 구조되는 데까지의 이야기도 내용이나 서술방법이 균질하지 않다. 흔히 이 작품을 치밀한 사실주의적 작품이라고 하지만, 실제 작품 안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인 서술방법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처음 몇 에피소드들, 즉 Crusoe의 아버지가 그에게 인생에 대한 충고를 해준 이야기와 그가 아버지의 권유를 듣지 않고 London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일, 그리고 Yarmouth 앞바다에서 또 폭풍을 만나 구명정을 타고 살아난 이야기 등은 비교적 간략하고 기술되었으며, 거기에는 구체적인 묘사도 별로 없다. 반면에 성서에 대한 인용이 많고 종교적인 여운이 강하다.

이 부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efoe가 이 작품을 썼을 당시의 문학적 상황을 조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때에는 여러가지 종교적인 글들이 청교도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예컨대 소위 “인도서(guide)”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중적 설교문으로서 인간에게 닦쳐올 도덕적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일러주는 일종의 도덕적 지도서였다. 또 Hunter가 “섭리서(Providence)”라고 명명한 유의 글들은 신이 인간사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예시해 주는 글들이었다. 이밖에도 “영적인 자서전(spiritual autobiography)”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구원을 향한 기독교도(이경우는 모두 비국교도들이었다)의 영적인 발전을 체험적으로 기록한 글들이었다. 이런 글들은 예화이거나, 아니면 구체적 내용이 있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언제나 영적인 이야기로 치환할 수 있는 것들로서 크게 보아 모두 알레고리류의 글들이었다.⁶⁾ Defoe는 이런 글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글들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Robinson Crusoe*를 썼을 때에도 그런 교훈적인 글의 전통과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 났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가 서문에 종교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 이작품을 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위에 언급한 처음 몇 에피소드들은 이런 종교적인 글들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들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종교적 교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레고리(allegory)

표시함.

6) 이상의 종교적인 교훈서에 관해서는 Pat Rogers, *Robinson Crusoe*(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pp.51-72 참조.

적 성격이 상당히 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Crusoe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부자관계가 아님이 여러가지로 암시되고 있는 점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히 나이가 많고 (ancient)”, “현명하고 근엄한(wise and grave)”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데다가, 그의 말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그에게 인간 이상의 신통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 Crusoe가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선장의 반응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Upon that I told him some of my Story: at the End of which he burst out with a strange kind of Passion. What had I done, says he, that such an unhappy Wretch should come into my Ship? I would not set my Foot in the same Ship with thee again for a Thousand Pounds. (p. 14)

Crusoe 자신이 곧 이어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그가 보기에도 지나친 언행이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쪽이 Crusoe 자신이고 보면, 선장의 반응은 정당한 것이 되며, 그렇다면 Crusoe의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며 그의 말을 거역한 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실제로 Crusoe는 무인도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충고를 저버린 죄를 자기의 “원죄(Original Sin)”라고 말하고 있다. 아난게 아니라 그의 반항을 검토해 보면 인간의 원죄와 닮은 점이 많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면하는 “중간 지위(the middle Station)”는 18세기에 풍미하였던 “존재의 거대한 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s)”의 틀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인간은 천사와 동물 사이의 존재로서 자기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며, 또 인간사회 속에서도 각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Crusoe는 중산층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당연한 충고에 대해서 Crusoe가 불복한 것이다.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반항이 아니라 충동적인 반항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아담과 이브가 신을 배반하였을 때에 보인 인간 본연의 반항심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Crusoe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간과 신의 관계와 대응한다.

둘째로, 성서의 예화에 대한 언급이나 인유 많은 점이다. 폭풍을 겪고난 다음이면 언제나 나오는 탕자의 예화에 대한 언급이나 두번째 항해 후 선장이 한 조나(Jonah)에 대한 언급등이 그것이다. 탕자나 조나의 예화는 모두 신에 대한 인간의 반항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들은 아버지에 대한 Crusoe의 거역이 신의 대한 거역임을 뒷받침해 준다.

셋째로 교훈에 필요한 요소만 간략하게 제시되었고 그 이외의 것들은 과감히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두 에피소드는 반항과 징벌과 참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의 이야기도 이것들에 상응하는 가출과 폭풍과 뉘우침의 연속일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사건은 취급되어 있지 않다. 첫번째 항해에서 폭풍을 만나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The Ship was no sooner gotten out of the *Humber*, but the Wind began to blow, and the Winds to rise in a most frightful manner: and as I had never been at Sea before. I was most inexpressibly sick in Body, and terrify'd in my Mind: I began now seriously to reflect upon what I had done, and how justly I was overtaken by the

Judgment of Heaven for my wicked leaving my Father's House, and abandoning my Duty: all the good counsel of my Parents, my Father's Tears and my Mother's Entreaties came now fresh into my Mind: and my Conscience, which was not yet come to the Pitch of Hardness to which it has been since, reproach'd me with the Contempt of Advice, and the Breach of my Duty to God and my Father. (p.9)

이것은 폭풍을 만난 배의 실제 장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폭풍이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그가 멀미를 심하게 했다는 말 이외에는 그것이 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배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Crusoe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전혀 없다.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올랐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명에 대한 애착같은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도 없다. 단지 신과 아버지에게 대한 Crusoe의 죄책감만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폭풍은 실제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신의 징벌을 알레고리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에피소드들은 *Robinson Crusoe*가 사실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통념과 달리 알레고리에 가깝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알레고리와 사실주의가 혼재해 있어서 서술방법상으로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두 상이한 서술양식의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두 양식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점진적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의 알레고리적 성격이 곧 약해지면서 사실적인 묘사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가령 두번째 폭풍장면만해도 첫번째 폭풍장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번째 항해로 Guinea 해안에 가서 흑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러 갔다 올 때부터 Crusoe는 이익금이나 사건(예컨대 그가 발명한 것)이 발생한 위치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정확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네번째 항해 도중에 해적에게 잡혀 Salle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기도할 때부터는 본격적인 사실주의 수법을 구사되고 있다. 특히 탈출 계획과 실행과정의 묘사는 현대의 어느 소설의 사실적 묘사에 못지 않게 치밀하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구조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서술방법상으로만 통일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본 기법의 변화는 주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처음의 두 모험을 거치는 동안에는 Crusoe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종교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동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자연현상까지도 종교적 시각에서 보려고 했다. 그러나 세번째 항해서부터 그는 종교적인 강박관념에서 상당히 풀려난 모습을 보인다.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던 그의 습관도 약화된다. 그 대신 그의 경제적인 관심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Watt가 말하는 소위 Homo economicus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지막 막으로 Brasil에서 Guinea의 해안으로 장사를 떠날 때에는 세세한 사물묘사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집착은 보이는 반면에, 앞서 항해에게 주어졌던 종교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작품의 첫부분과 이 부분 사이의 서술방법과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앞서 인용한 첫번째 폭풍장면과 이번 폭풍장면의 일부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And now our Case was very dismal indeed: for we all saw plainly, that the Sea went so high, that the Boat could not live, and that we should be inevitably drowned. As to making Sail, we had none, nor, if we had, could we ha' done any thing with it:

so we work'd at the Oar towards the Land, tho' with heavy Hearts, like Men going to Execution: for all we knew, that when the Boat came nearer the Shore, she would be dash'd in a Thousand Pieces by the Breach of the Sea. However, we committed our Souls to God in the most earnest Manner, and the Wind driving us towards the Shore, we hasten'd our Destruction with our own Hands, pulling as well as we could towards Land. (pp. 36-37)

우선 내용면에서 앞의 예와 비교하면 종교성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Crusoe의 후회와 죄책감만이 강조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확실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인데도 그것을 종교적, 도덕적 잘못 때문이라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고, 신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we committed our Souls to God in the most earnest Manner”라는 말은 특별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이면 누구나 죽음에 임했을 때에 하게 마련인 의례일 뿐이다.

또 앞의 예에서는 폭풍이 실제의 폭풍이라기 보다는 Crusoe에 대한 신의 진로를 알레고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것은 신과 Crusoe와의 관계의 한 양태를 표상하는 것이었으므로, 폭풍이 치는 동안의 묘사가 Crusoe의 심경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Crusoe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제외되는 비사실성을 노정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주목할 것은 전에는 Crusoe에게만 한정되었던 작가의 시선이 이제는 “we”라는 다수를 향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Crusoe는 이제 유일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다수 중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폭풍도 Crusoe에게만 몰아치는 신의 징벌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선원에게 닥친 기상재해라는 물리적 차원의 현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는 단순화를 요하는 알레고리적 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신 사실적 서술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에서 보았듯이 *Robinson Crusoe*의 처음 두세 에피소드와 그 나머지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뒷 부분을 자기 운명의 개척이나 경제적 성공, 사회적 진출등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려는 개인주의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앞 부분은 인생의 모든 것을 신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종교인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만큼 다르다. 이같이 서로 다른 테마에 걸맞게 처음에는 알레고리적 기법이 쓰이고 있으나 곧 그것이 사라지면서 그 대신 객관적이고, 세밀한 사실적 기법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범위를 좁혀서 무인도의 생활을 다룬 이야기에는 통일성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차례가 되었다. *Robinson Crusoe*의 가장 핵심이며 특징적인 이 부분은 개인주의자인 Crusoe의 활동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Crusoe가 난파선에서 필요한 물건을 날라오는 일, 자기의 은신처를 짓는 일, 일용품을 만들어 내고, 섬을 탐사하고, 가축과 곡식을 기르는 일 등이 자세한 세부묘사를 통해서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작품에서 가장 사실주의에 충실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작품의 허두에 나타났던 알레고리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인도 생활이 대체로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 면으로 그것은 Crusoe의 종교적 체험이기도 하다. 이 종교적인 테마가 되살아남과 함께 알레고리적 요소도 다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첫번째로 드러나는 알레고리적 요소는 무인도에 도착한 날이 Crusoe의 생일과 같은 9월 30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Hull로 도망갔던 날과 Sallee의 해적에게 잡혀 노예가 된 날자를 일치시킨 것과 같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 Defoe가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물론 Crusoe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것이 우연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신의 섭리이며, 이곳에서 그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재생하리라는 뜻일 것이다.

둘째는 Crusoe가 무인도에 표류한 것이 예언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그가 집을 나가서 모험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말리며 충고하던 끝에, 만약에 그가 끝내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면 신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때에 자기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였었다. 이제 Crusoe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는 작가가 자기의 의도를 노골적인 표명하는, 알레고리적 설화의 일반적인 특성이 여기서도 보인다는 점이다. Crusoe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생활을 무인도에 와서 재개하지만 그러기 위한 그의 회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신은 그에게 여러번 반성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깨닫지 못하자, 결국 노한 천사를 그의 꿈에 나타나게 하여 신에 대한 그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꾸짖으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게 한다. 이 천사의 출현은 비록 꿈의 형식을 빌기는 했으나 그래도 역시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반성의 촉구임에 틀림 없다. 이것은 Defoe가 종교적 테마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Crusoe의 무인도 생활에는 신앙회복을 위한 징벌과 회개의 의미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Crusoe는 이 섬에 표류하기 전에도 여러번 신의 징벌을 받았지만 회개하는 것이 그때 뿐이고 얼마 지나면 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그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부실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깥 세상에 대한 그의 호기심, 경제적 야심등 세속적인 욕망이 그에게 너무 컸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버리고 만다. 이제 외부와 단절된 그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성찰을 안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Crusoe가 무인도에 표류한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신과의 대면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의 신앙적 발전은 바로 그의 세속적 욕망의 포기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실지로 작품 속에서 Crusoe는 그같은 신앙회복의 과정 건는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나는 "deliver" 또는 "deliverance"라는 말 뜻의 변화로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표류했을 때에는 "deliver"라는 말이 순전히 무인도에서 구조된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속세로 다시 나가는 것을 뜻했다. 그러다가 그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불선한 과거를 회개하고 처음으로 성서를 꺼내서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and I will deliver, and thou shalt glorify me.(p.75)"라는 구절을 우연히 읽은 것을 계기로 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Now I began to construe the Words mentioned above, *Call on me, and I will deliver you*, in a different Sense from what I had ever done before: for then I had no Notion of any thing being call'd Deliverance, but my being deliver'd from the Captivity I was in: for tho' I was indeed at large in the Place, yet the Island was certainly a Prison to me, and that in the worst Sense in the World: but now I learn'd to take it in

another Sense: Now I look'd back upon my past Life with such Horrour, and my Sins appear'd so dreadful, that my Soul sought nothing of God, but Deliverance from the Load of Guilt that bore down all my Comfort: As for my solitary Life it was nothing: I did not so much as pray to be deliver'd from it, or think of it: It was all of no Consideration in Comparison to this....(p.77)

지금 Crusoe의 평화를 가장 해치는 것은 신에 대한 죄책감이며 “deliverance”는 바로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영적인 구원이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선하게 된 것이다. 그가 아직도 이 섬을 감옥으로, 자신을 그 속에 감금된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자유와 바깥 세상에 대한 회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미 인용문 끝에 이르르면 종교적 구원에 대한 바람에 비하면 그런 욕망은 미미한 것임이 나타난다. 이처럼 그의 죄책감이 세속적 생활에 관한 것이고 그가 바라는 바가 영혼의 평화라면 이제 그가 구하는 구원은 아까와는 정반대로 세상과 세속적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된 것이다.

이런 종교적 수양을 통하여 무인도에 온지 2년째 되는 해에는 바깥 세상에서의 생활보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는 세속적 욕망을 떠난 영적인 인간이 된다. 이후에 약간의 회의와 좌절을 겪지만 결국 표류한지 4년째 되는 해에는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맡기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Crusoe의 정신적인 변화는 그와 섬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가 이 섬에 표류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이 섬은 그에게 “the Island of Despair(p. 56),” 또는 “that wild miserable Place(p.63)”이었다. 이 섬은 처음에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떠나야 할 곳이지 자리 잡고 살 곳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열병을 앓고 나서 기력을 다시 회복한 후, 즉 그가 섬에 표류한지 10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서 Crusoe는 섬을 본격적으로 탐사한다. 이 탐사에서 그는 이 섬이 매우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임을 발견한다. 특히 북쪽 계곡의 묘사에는 이런 면이 두드러진다.

At the End of this March I came to an Opening, where the Country seem'd to descend to the West, and a little Spring of fresh Water which issued out of the Side of the Hill by me, run the other Way, that is due East: and the country appear'd so fresh, so green, so flourishing, every thing being in a constant Verdure, or *Flourish of Spring*, that it looked like a planted Garden. (pp.79-80)

시원한 샘과 영원한 봄이 있는 계곡은 황량한 절망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을 닮은 곳이다. 특히 마지막의 “Garden”이라는 말은 “Eden”을 연상시키며, 이곳이 잠재적인 낙원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후부터 Crusoe는 자기의 거처를 “home”이라 부르기 시작하고, 섬을 개척하여 풍요한 수확을 거두며 경관이 좋은 곳에 정자까지 짓는다. 그리하여 이 섬은 결국 그에게 실제로 낙토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이 된다.

서양문학에서 정원은 전통적으로 마음의 상징이다. 같은 맥락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도 마음의 수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흔히 쓰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Crusoe와 무인도와의 관계는 각별한 의미를 띤다. 그가 표류했을 당시 야생의 원시상태에 있던 섬은 신에 의해 순치되지 않은 완악한 그의 심성과 대응한다. 그러다가 영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깨달

으면서 그는 자기 성찰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섬의 탐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거기서 잠재적인 낙원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구원의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그가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맞기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나자 섬은 그에게 낙원같이 안락한 곳이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황야에서 성찬을 받는 것에 여러번 비유하고 있다. 이때서부터 그는 자신을 이 섬의 절대 군주로 자임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가 자기의 반항적인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조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그가 무인도를 가꾸고 일구어서 낙토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불선한 마음을 순치하고 신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얻게되는 종교적 발전의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앞서와 같이 사실적 차원의 이야기와 별개로 진행된 알레고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위에 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적 이야기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둘의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즉 상징적 표현(symbolism)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Defoe는 여기서 그의 작품에서 통일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 수법에 의한 통합은 극히 일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무인도의 이야기 전부에 그같은 기교적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테마면에서 분열된 양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테마가 각기 따로 발전한 결과 결말부에 가서 둘이 상충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 테마는 그가 신에게 완전히 귀의함으로써 완결되고 만다.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동안에는 내면적 변화와 드라마가 있지만, 그과정의 끝이고 나면 그것들도 소진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한지 4년째 되던 해까지는 그의 정신적 변화가 비교적 자세히, 많은 지면에 걸쳐 기술되고 있으나, 일단 그가 신앙을 완전히 회복한 후부터는 그런 내용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 다음에 11년이란 세월동안에 일어난 일의 기록이 도합 십여 페이지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사실적 차원의 이야기, 즉, 개인주의 테마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 이 테마가 완결되려면 Crusoe가 무인도에서 자력으로 살아 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으로 복귀하고 그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작품은 딜렘마에 빠지고 만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무인도를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지상목표였으므로 그것이 성취한 다음 Crusoe가 그곳에 영원이 머무는 것이 당연하나 사실적 차원에서는 그가 이 섬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율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그가 섬에서 구조될 가망성이 거의 없을 때에는 이 두 테마가 그런데로 공존할 수 있었지만, 바닷가에 발자욱이 나타남으로써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자 이 두 테마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Crusoe에게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현실이 종교에 우선한다. 이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단지 그동안 강조되었던 종교적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섬을 떠나는 것은 자가당착이 됨으로 그것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지로 발자욱을 발견된 후 그의 신앙심은 곧 퇴조하기 시작한다. 그전까지 그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겼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신에게 구원을 호소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고민(야만인이 공격해 올 상황에 대한 고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신에게 맡김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I had not that Relief in this Trouble from the Resignation I used to practise.... p.125)"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는 그가 그토록 자신만

만해했던 신앙심이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2년 후 다음과 같이 그의 고백에 의해 다시 확인된다.

... and this I must observe with Grief too, that the Discomposure of my Mind had too great impressions also upon the religious Part of my Thoughts, for the Dread and Terror of falling into the Hands of Savages and Canibals, lay so upon my Spirits, that I seldom found my self in a due Temper for application to my Maker, at least not with the sedate Calmness and Resignation of Soul which I was wont to do.... (p.128)

실제의 위기를 맞은 Crusoe가 그로 인해 신앙심을 전부 잃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대로 그의 신앙심에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신에게 기도하여 위안을 구할 염사가 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안위를 신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보위해야겠다는 개인주의적 독립심을 다시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무인도에 처음 상륙했을 때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이다.

식인종들에 대한 그의 태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바뀐다. 처음에는 그 야만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신의 섭리이므로 그들의 관습에 자기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동료를 얻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탈출을 위한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공격하여 살육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 종교적인 고려에 우선하고 만다.

이처럼 발자욱의 발견에서부터 Friday의 출현까지는 그전에 너무 고조되었던 Crusoe의 종교적 성향을 완화하는 일종의 조종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인주의 테마가 다시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두 테마의 상충이 어느 정도 정비된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에 의한 순리적 해결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한쪽을 약화시켜버리는 고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방편에 의한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Robinson Crusoe*는 소설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알레고리와 사실주의가 혼재해 있고 두개의 서로 다른 테마가 상치하는 등 통일성에 취약성이 많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이 작품이 얼마나 소설의 전형에 못미치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 작품에서 통일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날 소설의 관습을 Defoe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작품을 쓸 당시는 이러한 글이 하나의 장르로 정립되기 이전이고 예술작품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학의 규제도 받지 않을 때였다. 그러므로 그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어떤 기법도 원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종작없는 놀이가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였을 것이다. 그 목적하는 바는 다름 아닌 이 작품을 쓴 Defoe의 의도일텐데, 그가 서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서문에서 또 하나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이 실제 인물의 수기라고 주장하고는 끝에 가서 교훈뿐만 아니라 흥미도 언급하고 있다. 어떤 글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의 강도를 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대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렇다면 Defoe는 이 작품에서 사실성을 이용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꾸미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

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통일성의 문제들은 이러한 두 가지 목적과 연결해 보면 작가로서 Defoe의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시사해 준다. 우선 처음 부분의 알레고리와 곧 이어진 사실주의는 각기 교훈과 흥미라는 두 목적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efoe는 자기가 쓰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글에 적합한 수단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재래의 서술방법과 새로운 서술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알레고리에서 사실주의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은 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무인도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에서 마지막에 종교적 테마와 개인주의 테마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Crusoe의 종교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표출한 부분에서 그는 그 둘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Defoe가 바란 것은 노골적인 교훈적 이야기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것 같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교훈이 담긴 글을 쓰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교훈과 흥미, 알레고리와 사실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소설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Defoe는 *Robinson Crusoe*에서 아직 그런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Defoe가 비록 아직 소설가는 못됐지만 소설을 만들기 시작한, 소설의 창시자라는 점에는 이 론이 있을 수 없다.

Bibliography

- Boardman, Michael M. *Defoe and the Uses of Narrative*. New Brunswick: Rutgers UP, 1983.
- Byrd, Max, ed. *Daniel Defo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6.
- Hunter, J. Paul. *The Reluctant Pilgrim: Defoe's Emblematic Method and Quest for Form in Robinson Cruso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6.
- Rogers, Pat, ed. *Defoe: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K.P., 1972.
- Rogers, Pat. *Robinson Cruso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 Shinagel, Michael, ed. *Robinson Crusoe: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New York: W.W. Norton Company, 1975.
- Starr, George A. *Defoe and Spiritual Autobiography*. Princeton: Princeton UP, 1965.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57.

(이 논문은 1992년 발전기금 일반학술 연구비를 수혜하여 쓴 것임)